

# 수도권 청년들 교류 확대로 강진 매력 알린다

## 강진문화관광재단, 서울 지자체 청년센터 등과 협약 지역상생 협력체계 구축...관광 활성화·생활인구 확대

강진군이 수도권과 청년교류 확대를 통해 관광·문화 등 지역의 매력을 알린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서울시 관악구청년센터, 금천구청년센터, 강진군청년센터와 '지역교류 청년지원사업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청년과 강진 청년 간 교류를 확대하고, 강진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청년의 강진 방문과 체류,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수도권 청년이 '지역의 매력'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강진 관광프로그램, 수도권 청년에게 '잠시 삶'과 '회복'을 제공하고

는 강진문화프로그램, 지역 간 청년 교류사업 및 프로그램, 수도권 청년의 강진정착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2월 말 열리는 제54회 강진청자축제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강진군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활용해 청년 대상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센터들은 참여청년 발굴과 프로그램 연계를 담당해 청년 간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교류를 넘어, 청년에게 강진에서의 경험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고

실제 방문과 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강진군은 청년층의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태 강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청년이 지역을 경험하고, 머무르며, 다시 찾게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수도권 청년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강진이 청년에게 매력적인 문화·관광 교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청년·문화·관광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에 힘을 계속할 예정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서울지역 청년들의 강진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서울 관악구청년센터, 금천구청년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

## ‘여수 가치 전하다’ 여주시 SNS 서포터즈 출격

### 다양한 연령대 시민 25명 위촉 소통 강화·콘텐츠 운영 확대

여수시가 '2026년 제11기 여주시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호텔 마피유에서 가진 발대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제11기 SNS 서포터즈,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서포터즈와의 대화,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된 총 25명의 서포터즈는 페이스북(8명), 인스타그램(6명), 블로그(9명), 유튜브 여수시민 크리에이터(2명)로 채널별 콘텐츠 제작·홍보 능력이 뛰어난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별됐으며, 향후 1년간 여수시민을 대표



여수시는 지난 14일 호텔 마피유에서 '2026년 제11기 여수시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 SNS 채널을 통해 주요 시정은 물론 여수의 숨은 매력과 이야기를 발굴하고 홍보하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2026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서포터즈 데이(합동 취재 활동)'와 '서포터즈 미션(취재 소재)'

을 통해 섬 취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여수시민 크리에이터'를 신설해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공감·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모든 행정력과 시

민 역량을 결집해 섬박람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여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뭉친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최선을 다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세계로병원, 로봇 인공관절 수술 3000건 돌파

세계로병원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 누적 3000건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2000건을 돌파한 이후 불과 1년 1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 지역 의료기관으로서는 이례적인 속도다.

세계로병원은 2021년 3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처음 도입한 이후 꾸준히 수술 경험을 축적해 왔다.

2024년 2000건 달성에 이어 지난해에는 연간 900건 이상을 집도하며 로봇 수술 분야에서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하성 세계로병원 대표원장은 광주·전남 최초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 교육 과정 전문의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계로병원 의료진이 인공관절 수술 누적 3000건을 달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전 CT 영상 기반 3차원 무릎 모델을 구현해 환자의 뼈 구조와 관절 상태를 정밀 분석

한 뒤 수술 계획을 수립한다. 실제 수술 과정에서 로봇 시스템을 활용해 뼈 절삭 오차를 평균 1mm, 1도 미만으로 줄여

정확도와 재현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하성 대표원장은 "“수술 로봇이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로봇 시스템을 활용할 때 수술 오차를 줄이고 환자의 회복과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3000건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숙련된 의료진의 임상 경험과 로봇 시스템의 정밀함이 결합된 결과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술의 성공률과 환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농협은행 광주본부, 신용카드 순회교육

### 마케팅역량 강화·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인식 제고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신용카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마케팅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및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카드 상품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영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마케팅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고객 응대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를 공유하고, 개인신용정보 관리 기준 및 업무 처리 유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금융 사고 예방과 고객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신용카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임철현 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마케팅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분인 고객 정보 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농협은행 광주본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무안군은 지난 14일 영광 한빛원자력본부로부터 범용 관리기 10대와 농업용 굴착기 1대를 지원받아 해제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했다.

## 한빛원자력본부, 무안군에 농기계 기탁

### 농업인에 임대 예정...장비 구입 부담 경감

무안군은 지난 14일 영광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로부터 범용 관리기 10대와 농업용 굴착기 1대를 지원받아 해제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했다.

이번 지원은 한빛원자력본부가 무안군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 임대용 농기계 확충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 농작업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기계 임대를 통해 농업인의 장비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

이다. 무안군은 이번 기탁으로 농기계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에도 농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농기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과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 등 광주회생법원 개원준비단 구성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개원 준비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 광주회생법원 개원준비단, 3월 개원 총력

### 광주·전남·전북·제주 관할 지역 경제·기업 재기 역할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 개원(3월1일)을 준비 중인 광주회생법원 개원준비단이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을 관할하는 도산 전문 법원이다. 기존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부 제제와 비교해 법관 인력이 두 배 가까이 확충되고, 회생 위원과 파산 위원도 증원될 예정이어서 도산 사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원준비단은 법원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업무 매뉴얼 정비 등 개원 준비 전반을 맡고 있으며, 광주회생법원 출범 이후에는 회생법원 총무과 구성원으로 소속이 자동 변경된다.

광주지법은 본관과 별관을 중심으로 개원회생위원실과 민사합의실을 재배치하고, 별관 3층에는 회생법원 법원장실과 사무국장실, 총무과, 판사실 등을 새로 설치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서는 통합도산센터에는 회생·파산 상담과 절차 안내를 담당할 전담 창구도 마련된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광주회생법원은 지역 경제 회복과 기업 재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개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출범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 본사방문

▲양백승 광주북부경찰서장